

제418회 국회  
(정기회)

##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0월16일(수)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1)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2)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8)
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5)
6.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5)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6)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0)
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1)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3)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8)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5)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9)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8)
1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7)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8)
17.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1)
1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39)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5)
20.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성준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204595)
21. 국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정 동의를 건(의장 제의)

###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 2
- 의사일정 상정의 건 ..... 20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1) .....	20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2) .....	20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8) .....	20
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5) .....	20
6.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5) .....	20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6) .....	20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0) .....	20
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1) .....	20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3) .....	20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8) .....	20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5) .....	20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9) .....	20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8) .....	20
1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7) .....	20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8) .....	20
17.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1) .....	20
1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39) .....	20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5) .....	20
20.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성준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204595) .....	21
21. 국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	21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찬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박찬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운영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129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자료는 각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서 제출하여

주신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준영 간사님.

○**배준영 위원** 저는 국민의힘 간사로서 오늘 운영위 국감 증인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른 상임위의 귀감이 되어야 될 운영위원회가 중심을 잡기는커녕 결국 대통령 탄핵의 명분을 쌓기 위한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구출하기 위한 도구로 전략해 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협의를 하신다고 해서 이 명단을 보내 왔는데 조금 전에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 35명 중에 단 1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채택을 강행하려고 하는 증인 및 참고인들은 상당수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채택되었던 인물들입니다. 운영위가 무슨 상임위 뒤편이입니까? 뒤편 증인 채택, 스톡킹 증인 채택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증인에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국방부장관, 대통령경호처의 수행부장, 검사까지 망라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부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기관증인만 채택하고 국감을 진행하는 운영위의 오랜 전통도 민주당의 정쟁 야욕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제 북한이 군사분계선 10m 앞에서 폭탄으로 경의·동해선을 다 끊었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 대통령실 이전을 이유로 국방부장관을 부르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입틀막을 했다고 경호처 간부를 증인으로 부르는데 정작 여당의 증인 채택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국회를 입틀막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입니다.

저희는 문재인 정부 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있어 피격 공무원의 친형을 통해 인권 문제를 다뤄 보려고……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위원장 박찬대** 시간 2분 더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저희는 문재인 정부 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있어 피격 공무원의 친형을 통해 인권 문제를 다뤄 보려고 하었는데 목살당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자녀로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사회적 공분을 산 당사자를 부르려 했는데 목살당했습니다. 국회 안에서 탄핵의 밤을 개최한 촛불행동 상임대표에게 묻기 위해 요청했는데 거절됐습니다. 심지어는 국회 운영제도 개선 등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국회사무처 공무원의 증인 채택도 거부당했습니다.

22대 국회의 다른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벌어졌던 민주당의 묻지 마 갑질이 점점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안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의 증인과 참고인을 위한 회의인데 추가 안건 상정은 동의한 바 없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안건들을 분석해 보니 국회의 인사나 운영, 예산 상정 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고 정부의 시행령·규칙 등을 국회가 통제하기 위한 이른바 입법 쿠데타적인 법안으로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숙려기간도 되지 않은 안도 마구잡이로 밀어붙입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위원 전원은 오늘 이 자리의 민주당의 이런 편파적이며 독단적인 의사일정에 결단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은 이 같은 일들을 같은 당이라고 해서 수수방관만 하지 마시고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회의를 중단시키고 다시 논의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간사님 말씀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배준영 수석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요?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증인을 채택한 명단을 보면 지금은 문재인 정부예요. 명단 혹시 보셨나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가족들 다 불렀어요. 사위, 부인, 장녀 부르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이렇게 한 30여 명을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딱 증인 채택을 했는데……

국정감사라는 의미가 뭡니까?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실제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국정감사의 본연의 기능은 정부 비판·견제·감시 아니겠습니까? 이 증인 채택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지요, 우리 배준영 수석님의 말씀을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면.

누가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라고 하겠습니까, 이 증인 채택 과정을 보면.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연속이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 지금 초기입니까, 2년 차입니까, 3년 차입니까? 지금 3년 차 아니예요. 이제 중기를 넘어서게 되는 이 시점에서 정말로 윤석열 정권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는데, 국정감사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 관저 의혹뿐만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다시 검찰발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검찰이 다 흘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국정감사에서 파헤치라고 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본연의 기능인데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들을 보면 여전히……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박찬대 2분 더 넣어 주십시오.

○박성준 위원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겠습니다, 국정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면 그 증인들을 어떻게 채택해야 되는 것인지.

야당이 증인 채택한 내용들을 다 보십시오. 하나하나 보십시오. 왜 증인 채택했는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들, 공천 개입, 선거 개입, 도이치모터스, 해병대 순직 사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수많은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밝혀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야당이 당연히 증인 채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야당의 본연의 기능이고 더 나아가서 입법부의 본연의 기능이지요. 국민의힘 위원들은 입법부 기능 아닙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만 국정감사 할 겁니까? 윤석열 정권은 국정감사 안 합니까?

저는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국민의힘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증인 채택은 당연히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부분을 증인 채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다음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서미화 위원 서미화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서미화 위원님.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국정감사 일정 속에서 지금 굉장히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는 국민의힘에 단호한 경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절반을 채우기도 전에 스물네 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거부권 중에서 다섯 번의 거부권이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특검법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정황과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검찰은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김건희 여사를 직접 찾아가는 황제 수사를 했고요. 명품백 수수 사건은 검찰과 권익위 모두 무혐의로 종결시켰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국정농단을 해도, 공천에 개입을 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대체 누가……

○임이자 위원 뭘 공천에 개입을 했어요?

○서미화 위원 누가 김건희……

○모경종 위원 들어 보세요.

○서미화 위원 대체 누가 김건희 여사……

○임이자 위원 뭘 공천에 개입을 했어? 증거 있어?

○서미화 위원 김건희 여사에게……

○임이자 위원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김건희 김건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서미화 위원 시간 멈춰 주세요. 못 들으셨지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모경종 위원 끊지 마세요.

○노종면 위원 왜 그러세요.

○서미화 위원 시간 멈춰 주세요.

○양문석 위원 보자 보자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

○임이자 위원 이렇게 얘기하지.

○노종면 위원 왜 그러세요.

○모경종 위원 저희도 다 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서미화 위원 김건희 여사에게……

○임이자 위원 함부로 말이야, 언제 공천 개입했어! 증거 있어?

○서미화 위원 김건희 여사에게……

○노종면 위원 왜 반말하십니까?

○서미화 위원 임이자……

잠깐만요, 시간 멈춰 주세요.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에 안 맞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내용이라고 보세요?

○위원장 박찬대 지금 토론이에요, 토론. 증인 신청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에……

○서미화 위원 임이자 위원님, 혹시 개입되셨어요? 왜 그러세요? 반응이 심하시네요.

○임이자 위원 뭘 말을……

잠깐 멈춰 주세요.

○강승규 위원 뭘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상대 위원한테!

○이소영 위원 반말하지 마세요. 얼마 대고 반말이야?

○임이자 위원 잠깐 멈춰 보세요.

○모경종 위원 먼저 세계 하시잖아요.

○서미화 위원 저도 상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위원님들, 지금은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된 토론이니깐요.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임이자 위원 서미화 위원님은 공천 어떻게 받아 갖고 오셨어요? 나는 경선 해서 왔어!

○이소영 위원 명태균한테 안 받았어요, 우리는.

○임이자 위원 나는 경선 해서 왔어요!

○위원장 박찬대 임이자 위원님, 발언권 받아서 얘기하세요.

○임이자 위원 아니, 내가 참고 듣자 듣자 하니까 진짜…… 인내심이 없어.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겠어, 내가.

○양문석 위원 발언권 받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박찬대 토론의 입을 막으면 안 되시니까요.

○이소영 위원 인내심이 부족하시네요.

○임이자 위원 함부로 김건희 김건희 하지 마요!

○서미화 위원 임이자 위원님, 저도 경선 했습니다, 전 국민 경선!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 국민 경선 했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서미화 위원 임이자 위원님은 지역 경선이고요 저는 전 국민 경선 했습니다.

○임이자 위원 훌륭하십니다.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저도 경선 했으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공천에 대해서 내가 개입했냐고?

○서미화 위원 전 방송에 나오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찬대 서미화 위원님 토론해 주시고요.

○서미화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다음에 임이자 위원님 토론 기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시지요.

○임이자 위원 내가 봐서 신청할게요, 마음대로 주지는 마시고.

○서미화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공천에 개입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가 김건희 여사에게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두르도록 허락한 것입니까?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방탄에만 올인하면서 모든 특검을 거부했고 검찰은 정권의 하

수인으로 살아 있는 권력을 지키는 데만 급급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대한 몸집을 드러내는 명태균 게이트, 비선 정권의 파문에 국민들은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커져 가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 앞에 도돌이표 되는 거부권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여당 대표마저도 주가조작 사건에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용산 쇠신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에 따라 대통령실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는 게 맞다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방탄 거부권 그만 행사하시고 김건희 여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운영위에서 이런 정쟁 물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강력한 경고 조치를 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에 대한 것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지난 6월 21일 본 위원이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특별감사가 얼마 전 종료됐는데요. 안창호 위원장님께 보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직장 갑질 피해자는 신고와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충상 상임위원도 임기초부터 문제됐던 갑질, 폭언 등으로 감사대상이 되었고요. 감사결과에 따라서 제2, 제3의 갑질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마땅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요……

○위원장 박찬대 서미화 위원님, 지금은 토론시간이니깐요 따로 자료제출과 관련된 건을 요청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결과와 조치사항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 제출하지 않을 때는 증감법에 따라서 피감기관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양당 간사 간에 증인과 참고인 채택과 관련된 부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각 정당이 요구하고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 토론을 갖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서미화 위원님 요구하셨던 자료제출의 건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은 다음에 별도의 시간을 드릴 거고요.

○서미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임이자 위원님께는 요청하셨던 토론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신청하신 신장식 위원님 토론을 듣고 그리고 임이자 위원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이자 위원님 다음에 토론하실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위원님.

○신장식 위원 잠시 전 배준영 간사님께서 운영위원회는 기관증인 이외에 일반증인·참고인을 채택한 관례가 없다, 사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조선 의원이라서 관례를 좀 찾아보니까 사실 그래 왔더라고요. 일반증인·참고인을 채택한 사례가 없는 데……

○배준영 위원 아니, 전통이 그랬다는 겁니다. 매번 하지 않았다는 얘가지요.

○신장식 위원 예.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김건희 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제6공화국이 출범한 이래로 여러 명의 대통령들이 계셨지만 어떤 정권에서도 여사가 무슨 개인적인 라인을 형성했다는 얘기를 들어 보지 못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께서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대통령실이라는 기관 위에 여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김종혁 최고위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전례를 이야기하면서 일반증인·참고인 채택,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증인·참고인 채택에 전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전례 없는 정권하에서는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명토 박아 드립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임이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존경하는 박성준 간사님께서 현 정부는 윤석열 정부이고 윤석열 정부를 국정감사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말씀에서 참……

제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운영위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운영위원 할 때 그 때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 야당일 때 증인 신청했을 때 하나도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쌓이면 흔적으로 남고 그 흔적이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 정부도 시간이 지나면 흔적이 돼서 역사로 남겠지요.

지금 김건희 김건희 김건희 계속……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국정감사의 모토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는 실체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은 어디로 갔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국정감사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문다혜 씨는 왜 청와대에서 거주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문다혜 씨의 당시 남편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는 어떻게 해서 이스타에 취직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 채용 비리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알릴 필요도 있고 알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런 증인 채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도 채택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의회가 민주주의를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수당인 우리 국민의힘 의견도 청취해서,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 주는 게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채택한 증인들은 다 하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채택한 증인들은 하나도 채택해 주지 않고……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법안들도 보게 되면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오로지 이재명 선고에 맞춰서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총력적으로, 180명에 달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총력전을 벌이는 것은 알겠지만 실체도 있지 않은…… 아니, 공천 개입이라니요? 어떻게, 여사 라인이 있다라는 걸 나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소영 위원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임이자 위원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본 적도 없고. 어떻게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모든 것을 악마화시키고 마녀사냥식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대통령 탄핵의 고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사는 참 가상합니다마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고, 이재명 방탄 제발 멈추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이소영 위원님 그다음에 강민국 위원님 그다음에 김성희 위원님 이렇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여당 위원님들, 상황을 똑바로 직시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조선일보의 조선칼럼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목 ‘나라인가, 아내인가’.

마지막 부분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와 아내,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이게 오늘 나온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이것도 조선일보가 악마화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칼럼 내용이?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지금 정신 차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 제대로 털고 가지 않으면 정권 무너지는 것 순식간이라고 하는 내용의 칼럼입니다.

○강승규 위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소영 위원 읽어 보세요!

○모경종 위원 들어 보세요.

○강승규 위원 여당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고민정 위원 좀 들어요. 강승규 위원님, 들어요.

○이소영 위원 아니, 김건희 여사 의혹 실체가 없다? 아니,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왜 조선일보까지 여당 걱정을 합니까!

○임이자 위원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전용기 위원 나라 걱정하는 겁니다, 나라 걱정!

○정진욱 위원 여당 걱정 아니고요 나라 걱정하는 겁니다.

○이소영 위원 아니, 왜 조선일보가 아내를 버려야 나라가 산다고 정부 여당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여당 위원님들이 이렇게 상황 파악 못 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이니 문다혜 씨니 국민들 관심 없는 다 지나간 얘기에 집착하고 이런 모습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냥 없는 일인 것처럼 외면하고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회피하고 이러기에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다. 특검이든 증인이든 이런 상황까지 됐으면 다 겸허하게 수용하고 지금까지 잘못이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 잘하겠다, 지금부터는 김건희 여사 더 이상 사고 치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 임이자 위원 거 말조심하세요, 사고 치지 말라니요?  
 ○강승규 위원 그거 이재명 대표한테 가서 하라니까요.  
 ○모경종 위원 좀 들어 보세요.  
 ○양문석 위원 아니, 이야기할 때 들어라, 좀!  
 ○임이자 위원 말조심하세요!  
 ○이소영 위원 김건희 여사 버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조선일보가 충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승규 위원 정쟁 국회 만들지 말라고 이재명 대표한테 그 얘기 하세요!  
 ○이소영 위원 조선일보의 충언을 들으세요. 조선일보의 충언을 들으십시오.

(장내 소란)

정신을 차리세요. 상황 판단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상황을 직시하세요.

- 윤종군 위원 누가 먼저 큰소리 질렀어요?  
 ○강승규 위원 큰소리 왜 못 해, 큰소리 왜 못 해!  
 ○위원장 박찬대 자, 위원님들!  
 ○윤종군 위원 대통령 참모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세요.  
 ○강승규 위원 대통령 참모로 잘 모셨으니까 여기 왔지!  
 ○위원장 박찬대 강승규 위원님, 윤종군 위원님!  
 ○윤종군 위원 지금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강승규 위원 나라를 누가 만들었어? 이재명이가 이렇게 만들었지!  
 ○고민정 위원 윤석열이 이렇게 만들었지!  
 ○전용기 위원 이재명 정부예요? 이재명 정부냐고요!  
 ○위원장 박찬대 자, 이재명 정부 위원님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토론에 많은 다른 위원들이 많이 개입을 하셔서 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정리할 시간을 좀 드릴까요?  
 ○이소영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괜찮습니까?

위원장으로서는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하게 토론하는 모습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 강승규 위원 위원장께서 편파적으로 하니까 그렇지요.  
 ○고민정 위원 주의 조치 좀 주세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강승규 위원 증인을 일방적으로 채택을 하니까……  
 ○위원장 박찬대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위원장이 편파적이니까 이러는 거지요. 뭘 즐기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찬대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위원장께서 여당이 추천한 증인을 한 명도 채택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러는 거지요!  
 ○모경종 위원 위원장보고 즐기고 있단니요!  
 ○위원장 박찬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지금……

- 김정재 위원 아니, 표정 보세요, 표정. 즐기고 있네.
- 강유정 위원 즐기고 있다니요.
- 전용기 위원 아니, 회의 방해하러 오신 거예요?
- 위원장 박찬대 의사진행……
- 강승규 위원 즐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 김정재 위원 증인·참고인을 한 명도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왜 한 명도 안 해요?
- 위원장 박찬대 조용히 좀 해 주세요.
- 김정재 위원 왜 마음대로 합니까, 왜? 왜 일방적으로 해요?
- 전용기 위원 회의 방해하지 마세요, 좀!
- 김정재 위원 왜 일방적으로 합니까, 왜! 왜 다 일방적으로 해요?
- 위원장 박찬대 아니, 회의……
- 임이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하니까 그렇잖아요!
- 모경종 위원 지금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뭐가 일방적입니까?
- 위원장 박찬대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 임이자 위원 증인 채택, 법안 문제 다 일방적으로 하니까 그런 것 아니야!
- 전용기 위원 대통령한테 그 말씀 좀 하세요,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고!
- 위원장 박찬대 야당 위원님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여당 위원님들도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 임이자 위원 다 일방적으로 하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는 것 아니에요?
- 전용기 위원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 김정재 위원 아니, 증인 채택 왜 안 해 줘요, 왜! 뭐 때문에 안 해 줘요?
- 위원장 박찬대 증인 채택은요……
- 강승규 위원 아니, 여당이 추천한 증인은 한 명도 안 하고 위원회 증인을 채택하자는 회의가 어디 있어요?
- 위원장 박찬대 아니, 증인 채택했습니까? 아직 의결 안 했는데?
- 고민정 위원 지금 토론하잖아요, 그래서요!
- 강승규 위원 여당이 주장하는 증인은 한 명도 채택 안 했잖아요, 지금!
- 강유정 위원 아니, 발언권 얻어서 토론하세요.
- 고민정 위원 그래서 토론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박찬대 조용히 좀 해 주시고요. 야당 위원님들도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 강승규 위원 이런 협상이 어디 있어, 이런 협상이!
- 김정재 위원 아니, 국회를 이렇게 개관으로 이끄는데 무슨 순서가 어디 있어요!
- 모경종 위원 국가를 이렇게 개관으로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 김정재 위원 개관이지 개관, 이게 개관이지 뭐예요?
- 윤종군 위원 이게 다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 강승규 위원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거야!
- 고민정 위원 김건희 여사가 국가를 개관으로 만들고 있는 거지요!
- 김정재 위원 일방적으로, 증인 일방적으로 해서 이게 개관이지 뭐니까?

○모경종 위원 개판이라니요!

○강승규 위원 개판이지, 그럼!

○이소영 위원 대통령이 개판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일단은……

○김정재 위원 입법·사법·행정 다 망가뜨려 놓은 이 민주당이 개판이지, 뭐니까?

○이소영 위원 이렇게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어디다가 개판이라는 거예요?

○위원장 박찬대 여당이 지금 회의 진행을, 내가 보니까……

○김정재 위원 이렇게 개판으로 하는데 뭘 하자는 거예요?

○강유정 위원 국정이 아사리판이니까요!

○김정재 위원 이런 개판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박찬대 김정재 위원님, 회의 진행 계속 방해하고 계시는데요……

○강승규 위원 여당이 뭘 방해해! 위원장이 잘못하니까 방해를 하는 거지! 방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주장을 하는 거지!

○전용기 위원 그게 방해예요.

○위원장 박찬대 강승규 위원님,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시라고.

○모경종 위원 발언권을 얻고 하십시오.

○임이자 위원 발언권을 안 주잖아요.

○윤종군 위원 발언권 다 드렸잖아요, 왜 안 준다고 그래.

○위원장 박찬대 잠깐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아예 걱정하고들 나오신 것 같은데요,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강승규 위원 걱정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여당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판정을 해요, 그렇게!

○위원장 박찬대 조용히 해 주시고요.

○강명구 위원 무슨 말씀을 위원장이 그렇게 하세요? 뭘 걱정했다는 거예요?

○강승규 위원 무슨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서미화 위원 말꼬리 좀 그만 잡아요!

○강명구 위원 위원장이 뭘 걱정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찬대 아니, 왜……

○강승규 위원 뭘 걱정했다는 거야?

○서미화 위원 회의가 안 되잖아요!

○강명구 위원 왜 그렇게 회의 진행을 편파적으로 하세요!

○서미화 위원 토론합시다!

○위원장 박찬대 회의 진행을 제가……

○강명구 위원 걱정했더니요! 뭘 걱정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찬대 강명구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강명구 위원 뭘 걱정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박찬대 아니, 지금 다른 사람 의사진행 하고……

○강명구 위원 지금 비아냥대는 거잖아요, 저희들한테. 걱정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고민정 위원 말을 좀 들어요, 강명구 위원님! 말을 좀 들어요, 말을. 강명구 위원님, 말을 좀 들어요.

○강명구 위원 위원님!

○고민정 위원 말을 못 하잖아요.

○위원장 박찬대 배준영 간사님!

○고민정 위원 하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찬대 배준영 간사님,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있으셨나요?

○강명구 위원 뭘 작정을 했다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배준영 위원 우리 쪽 이제 의사진행발언도 하시지요.

○위원장 박찬대 의사진행발언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이소영 위원님 다음에 강민국 위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요 증인과 참고인 채택과 관련된 토론이  
에요.

○강민국 위원 저한테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박찬대 토론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장을 보고 하지  
마시고요 여당과 야당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는 거예요. 토론을 위원장하고 하실 겁니  
까?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거지만 토론은 위원님들 간에 하는 건데 질서 있  
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도 못 해요?

○위원장 박찬대 아니, 지금 토론시간 아닙니까?

○임이자 위원 토론할 사람은 토론하고 의사진행 할 사람은 의사진행발언하는 거지 그  
것을 왜 위원장님이 이래라저래라 하세요?

○위원장 박찬대 아니, 그러면 위원장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임이자 위원 아무리 사회권을 갖고 있어도 의사진행 할 사람은 의사진행 하도록 해  
줘야지.

○강승규 위원 야당이 토론하다가 자료요청하는데 그때는 제지도 안 하고……

○위원장 박찬대 강민국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지금 여야 위원님들이 거의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번 국감 증인 출석요구 명단을 보고  
저도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는 기승전결 김건희 여사이고 우리 국민의힘은 기승전결 이재명 대표  
를 가지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 과연 옳으냐라는 부분도 한번 고민할 필요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님한테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지  
금 이 출석요구 명단 보면 11월 1일 날 하루에 77명을 불러요. 이대로 하면 사실 국정감  
사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대통령실의 국정감사면 대통령실 고유 업무의 기능과 어떤 그 부분을 국  
회에서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지, 이 부분을 박성준 간사님하고 배준영 간사님이 다시  
한번 의논하실 필요가 있다. 1일 날 하루에 칠십몇 명을 불러서 어떻게…… 그러면 한  
명도 안 부르고 증인들을 채택해 놓고 그냥 보낸다는 것은 사실 이런 것도 국회의원들이

욕을 들어 먹어야 될 장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 여당 위원님들도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고 또 야당 위원님도 충분히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님께서 이것 한번 의논을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강민국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토론을 신청하신 분이 강민국 위원님 이후에 일곱 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성희 위원님 그다음에 모경중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 신청이 있어요. 그다음에 강명구 위원님도 지금 막 신청을 하셨고요.

토론 신청하실 분이 더 계실까요?

○박성준 위원 여야 2명씩만 하시지요.

○임이자 위원 아니, 다시 재협상해요. 간사들끼리 협상해요.

○위원장 박찬대 3명씩 할까요?

○박성준 위원 2명씩만 해요.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강민국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 그다음에 강명구 위원님……

○강민국 위원 나는 했고, 나는 했어.

○위원장 박찬대 그렇지요, 하셨지요.

그러면 두 분씩만 할까요? 주진우 위원님하고 강명구 위원님이 신청을 하셨으니까……

○배준영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잠깐만 위원장님, 그리고 토론만 하는 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너무 묵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받아 줘야지, 왜 의사진행발언은 안 받아 줘.

○서미화 위원 그러니까. 나도 또 해야 되는데, 의사진행발언.

임이자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나도 해야 돼요.

○위원장 박찬대 일단은 여당 측에서 두 분이 토론 신청을 하셨고요 야당에서는 세 분이 하셨는데 김성희 위원님, 모경중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중에 두 분만 진행하면 어떨까요? 전용기 위원님도 계시네요.

그러면 먼저 신청한 순서로, 좀 아쉽겠지만 김성희 위원님하고 모경중 위원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희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주진우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고양갑 김성희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증인 신청하신 것 보면 과거 권력과 미래 권력에 대한 검증이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검증이라서 현재 권력에 대한 검증이어야 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그의 딸·아들·사위·부인, 뭐 청와대 가족사진이라도 찍어 주시려는 건지 아니면 청와대 소속했던 비서관들 다 나오라 그래서 청와대 5비 사진을 찍어 주시려고 하는 건지……

현재 권력에 대한 검증이 어려우신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비서실 국정 감사를 하는데, 여기 쪽 비서실에 계신 분들 나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 따지는 게 글썽요, 언론들이 납득을 할지.

그리고 감사원, 헌법적 독립기관이라고 하지만 검찰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맡썬하신 사건들에 대해서 아주 이 잡듯 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좀 내려놓으시고 검찰을 믿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황당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대통령비서실 국감에 이재명 대표를 부르자는 것은 뭔가요? 국민의힘으로서는 대통령 자질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양당 대표회담 모두발언 중 계엄 발언에 대한 입장, 배경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한동훈 대표님한테 여쭙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 회담한 사이인데? 그런 의견을 묻자고 이재명 대표를 비서실에 부르면 미래 권력으로 너무 인정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평론가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꼭 이재명 대표를 키워 주실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국회를 너무 희화화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 큰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말씀보다도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의 칼럼 ‘공정에 어긋나면 그 누구도, 어느 권력자도 가차 없고 상식을 벗어나면 누구든, 심지어 대통령 자신과 가족도 대가를 치르는 엄격함만이 국민의 공감을 살 것이다. 그래야 나라가 보수의 정체성 위에 바로 선다’, 이게 벌써 나온 지가 1년이 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좀 새기시고 현재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함으로써 새롭게 국회가 자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는데 지금 증인 신청한 내역들을 죽 보면 기존 관례에도 안 맞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증인 신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 균형을 위해서 같이 신청을 한 것이고요.

지금 그럴 듯하게 말씀하시지만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의 일이고 그게 현재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대통령실 여부랑 상관 있지요?

그리고 여기 있는 증인들 중에 이때까지 법사위에서 불렀던 증인들도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에 정영균 회림 대표가 나와서, 무슨 김건희 여사랑 가깝다고 해 가지고 회림,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건축설계업체인데 회림을 불러 가지고 밤 11시 반까지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2018년도에 김건희 여사와 아시는 분이 회림에 딱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지병으로 사망을 하셨어요. 지금 회림에는 아는 사람도 없는 상태이고 회림이 어떻게 보면 세계 글로벌 6위 업체라서 이것저것 설계업체에서 감리도 하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따지지 않고 법무부에서 공사 땀다, 어디서 공사 땀다, 그래서 무슨 의혹이 있다. 구체적인 단서 없이 계속 증인들을 부르는 겁니다. 이걸 왜 국회운영위에서 기존의 관례를 무시하고 증인들을 막 불러야 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야 균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방탄을 위해서 무조건 기승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증인을 다 부르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야당의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가 증인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의사……

2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이 뒤에 있는, 지금은 증인 신청 관련된 거지만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뒤의 것들도 보면 다 일방적으로 통과하겠다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위원회가 여야 협치 또는 여야 협의를 통해서 운영해 오던 관례를 다 저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상설특검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김건희 여사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면 숙려기간도 경과되지 않았는데 오늘 이미 안건 올린 것 보니까 보나 마나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추천 방식이 위헌적입니다. 여야 2명씩 2명씩 추천하기로 돼 있던 기존의 방식은 존경하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님께서 법안 발의하실 때 강력히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입장 바뀌었다고 갑자기 야당이 의혹 제기하고 야당이 특검을 고르겠다? 이런 상설특검은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규정이고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기존에 왜 불필요하게 특검법안 그렇게 열심히 발의했습니까? 상설특검으로 처음부터 하시지요. 야당도 상설특검법안 규칙 개정으로 이걸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동안 특검법안 계속 발의를 했던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생과 상관없이 계속 특검법안 발의하고 위헌적인 법안 발의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는 이 장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무용한 절차를 왜 해야 됩니까?

○정진욱 위원 불리하면 위헌입니까?

○주진우 위원 기본적으로 이 규칙 개정은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책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용한 절차를 여야가 왜 계속 반복해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증인 신청, 이 안건부터 새로 여야 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위헌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합헌결정이 난 적이 있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리고 2차는 결혼 이후예요. 계속 또 그걸……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증인 명단을 보고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문재인 대통령 가족을 다 부르시고요 그다음에 성명도 적지 못하는 미상이라고 해서 증인 신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4년 국정감사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따지는 국정감사의 자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까지 따지자면, 그 이전 대통령 시절까지 다 따지자고 하면 국정감사가 끝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증인 명단을 보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을 사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 내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그리고 김



건희 여사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털고 가십시오. 그게 국민들에게 뽏뽏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여당의 모습이 될 거라고 보고요.

자꾸 이재명 방탄, 이재명 방탄 이야기하시는데 재판 일주일에 세 번 넘게 받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 수사 받을 만큼 받았고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방탄하려고 해 봤자 뽏 방탄할 수 있습니까? 진짜 방탄하려고 하는 것은 김건희·윤석열 그 두 사람 아닙니까?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여 감시해야 되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야 균형이라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여야가 힘을 합쳐서 나라가 똑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영부인이든 심지어는 대통령이든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상설특검 이야기하시면서 위헌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고 무용한 절차라고 까지 말씀하시는데요. 방금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헌결정 나온 사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의 이야기를 왜 계속하느냐? 2차 주가조작은 결혼 이후에 한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팩트 자체도 조금 더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습니다. 국가를 다스리시고 있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본인 부인부터, 배우자부터 한번 챙기셔야 될 필요가 있고 대통령이 못 하고 있다면 집권 여당이 나서서 먼저 쓴소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위원님들이시니까 앞에서 누구 방탄이니 누구 방탄이니 할 것 없이 실제로 잘못된 점을 꼬집는, 실제로 잘못된 지점을 바로잡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수신제가는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고민정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지요.

○임이자 위원 수신제가는 이재명 대표가 해야지.

○고민정 위원 수신제가 제일 못하는 게 지금 김건희 여사……

○윤종균 위원 수신제가를 각자 잘합시다.

○강명구 위원 강명구 위원입니다.

우리 국회운영위는 여야 원내대표님과 함께 국회 운영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운영위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박찬대 위원장님 지난번에 7월 1일 날 22대 원 구성 마무리되고 하신 말씀 중에 ‘협치의 아름다운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증인 명단을 보니까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명단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증인 명단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요청한 명단만 다 있고요.

○위원장 박찬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요, 명단 여기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리고 지금 상정된 법안도 마찬가지로요. 이게 단 하나라도 정말 양

간사님들께서 합의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가지고 올라온 법안이면 제가 이런 얘기도 안 하겠어요. 이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협치 아니잖아요.

또 협치라는 건요, 좋습니다. 이게 180석의 민심이다손 칩시다. 그러면 108석의 민심도 있는 거예요. 이게 따지면 180 대 108의 비율을 맞춰야지요, 어떻게 100 대 0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오늘 여야 합의 없이 올라온 법안들 한번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것도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얘기이고 현행법상에도 형사처벌 근거가 없어요. 법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불신임하고 해임할 수 있는 법안도 올라왔는데 이게 정당정치의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대의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거 반드시 다시 양 간사님께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협의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뭔가 걱정하고 들어왔다’라는 표현은 정말 유감입니다. 초선 의원이 봤을 때 그거는 초선 의원들에게 비아냥대는 위원장님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실례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국회가 정쟁의 국감이 아니라 민생의 국감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강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토론이었는데 몇몇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 또 자료 요청 또 법안 상정에 대한 토론까지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었지만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는 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양당 간사님들께서 잠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11시에 속개하면 될까요?

○배준영 위원 잠깐만요.

○임이자 위원 아니, 이것이 10분 안에 끝난다고?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양당 간사들 간에 협의를……

○배준영 위원 아니요, 정회 전에 잠깐만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전용기 위원 정회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회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찬대 정회하고……

○임이자 위원 아니, 어떻게 이것을…… 10분 만에 할 얘기가 돼요, 이게 10분 만에? 위원장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김정재 위원 아니, 증인을 한 명도 안 받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임이자 위원 그냥 절차상으로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려고 그런 꿈수 부리지 말고……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임이자 위원 어떻게 10분 만에 이것을 해결해요, 10분 만에!

○위원장 박찬대 말씀하세요. 몇 분 정도 하면 될까요?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사실 며칠에 걸쳐서 정말 저는 인내심을 갖고 민주당에서 저희 안을 받아 주고 협의를 하기를 원했는데 지난 며칠간 제대로 협의 안 되고 저희 증인은 한 명도 채택이 안 된 상황에서 10분 동안 정회해서 하라는 거는 저희한테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김정재 위원 합의도 안 된 것을 상정해서 이렇게 회의를 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배준영 위원 할 수가 없어요.

○김정재 위원 여야 간사님들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찬대 간사님, 그러면 3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뭘 속개를 해요?

○전용기 위원 정회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아예 우리는 응하지 않을 테니까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전용기 위원 정회해 주세요.

○임이자 위원 이러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퇴장이야, 퇴장!

퇴장하십시오, 퇴장!

○위원장 박찬대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고 11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준 간사님, 협의한 내용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박성준 위원 배준영 수석과 만나서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요. 특히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요. 이번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정회한 이후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저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안타깝게도 토론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도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현시점에서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종 국정 운영의 난맥상과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위해서는 핵심적인 증인들의 채택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서 배부해 드리는 증인·참고인 명단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명단은 다시 배부해 드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은 다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영부인 김건희, 명태균 씨 등 일반증인 30명, 전 MBC 기자 장인수 등 참고인 3명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1시24분)

○위원장 박찬대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1항까지의 법률안 및 규칙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0항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과 관련하여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는 회부일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은 규칙안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20항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신속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어 오늘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1)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2)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8)
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5)
6.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5)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6)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0)
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1)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3)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8)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5)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9)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8)
1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7)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8)
17.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1)
1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39)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5)

20.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성준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204595)

21. 국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국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정 동의의 건까지 2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관례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대체토론을 생략하되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향후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1항까지 20건의 안건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국회운영개선소위에 계류 중인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제도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과 직접 관련된 황운하 의원과 임광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2건이 최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국회운영개선소위로 바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30인)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감사대상기관 (출석일시 및 장소)	신문요지
고상만	전 군사평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국가인권위원회 (10. 31. 국회)	군 사망사고 원인 진상규명 관련
김건희	영부인	대통령비서실	대통령실 총선 공천 개입 관련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감사대상기관 (출석일시 및 장소)	신문요지
		(11. 1. 국회)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 관련
명태균	-		대통령실 총선 공천 개입 관련
김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김영선	전 국회의원		대통령실 선거 개입 등 의혹 관련
강혜경	전 김영선 의원실 회계담당 비서관		대통령실 선거 개입 등 의혹 관련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관련 임성근 구명 로비 사건 관련
이정필	김건희 도이치 주식거래계좌관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기현	DS투자증권 강남센터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태영	21Gram 대표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정영균	희림 대표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관련
이용균	알스퀘어 대표		대통령비서실 공관 증축 관련
송호중	전 대통령경호처 과장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정상석	대통령경호처 전 총무부장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김 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김오진	한국공항공사 사장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 관련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관련
김진우	(주)이에스아이엔디 대표이사		대통령실 출입 및 회의 참석 의혹 친인척 국정개입 의혹
권준영	행안부 노사후생과 과장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이영인	행안부 청사관리본부 과장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음주운전 봐주기 징계처분 의혹
황종호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		대통령실 선거 개입 관련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감사대상기관 (출석일시 및 장소)	신문요지
김용현	국방부장관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북한 오물풍선 투하 관련
여인형	방첩사령관		북한 오물풍선 투하 관련
박희영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대통령실 관저 불법 이전 관련
정덕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태훈	대통령경호처 수행부장	대통령경호처 (11. 1. 국회)	대통령 입틀막 경호 사건 관련

## 참고인(3인)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감사대상기관 (출석일시 및 장소)	신문요지
송해진	이재현 어머니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국가인권위원회 (10. 31. 국회)	이태원 참사 2주기 관련
장인수	전 MBC 기자	대통령비서실 (11. 1. 국회)	대통령실 선거 개입 등 의혹 관련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 ○출석 위원(27인)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강유정 고민정 권영진 김민석 김성희 김정재 노종면  
모경종 박성준 박찬대 배준영 서미화 신장식 양문석 윤건영 윤종균 이소영  
임이자 전용기 정진욱 주진우 천하람 추경호 추미애

## ○청가 위원(1인)

정성국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입법심의관 주성훈

## 【보고사항】

## ○의안 회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4.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7)

9월 25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5.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8)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5.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1)

이상 2건 9월 26일 회부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6.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39)

**태극기 거부, 친일매국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즉각 파면 요구 결의안**  
(2024. 9. 26. 박선원 의원 등 52인 발의)(의안번호 2204375)

이상 2건 9월 27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7.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5)

9월 30일 회부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30.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0)

10월 2일 회부됨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4. 10. 7. 박성준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204595)

10월 8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10.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6)

10월 11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11. 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0)

10월 14일 회부됨